

업·개·소·식

중국 수정진동자공장 설립

고니정밀 (주)

고니정밀(대표 : 신대균)이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 아일랜드에 이어 중국에도 현지공장을 세운다.

동사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향후 이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키 위해 210만달러를 단독으로 투자,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월 120만개 생산규모의 수정진동자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고니정밀은 현지 당국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9월중 승인이 나는대로 3층규모의 임차공장에 생산설비를 갖춰 내년초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현지 판매허가가 날때까지 우선 80%이상을 미국 유럽 등 3개국에 수출키로 했다.

한편 고니정밀은 유럽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 월 15만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아일랜드공장도 내년까지 월 생산능력 50만개정도로 증설할 예정이다.

고온 초전도 SQUID 국산화

금성사 중앙연구소

액체질소를 냉매로 사용한 고온초전도 SQUID(양자간섭소자)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금성사중앙연구소 오병두 박사팀은 액체질소 온도인 섭씨 영하 1백 96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센서인 고온초전도 스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스퀴드는 미세한 자장을 측정하는 첨단센서로 10만분의 1가우스(가우스는 자장의 단위)까지 잡아낼수 있다.

오박사팀은 기존 직류전류양자간섭소자에 아르곤가스를 이용한 진공증착방식인 스퍼터링방식으로 두께 0.4미크론(μ)의 고온초전도 체막을 입힌다음 회로를 형성하고 2개의 조셉슨소자를 접합시켜 액체질소에서 초전도현상을 내는 스퀴드를 완성했다. 이번에 개발한 고온초전도 스퀴드는 액체질소를 냉매로 써 영하 1백 96도에서 작동하기때문에 값이 비싼액체헬륨을 냉매로 사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용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온초전도 스퀴드는 지난 87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후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오박사는 이번 고온초전도 양자간섭소자개발로 심장박동시 발생하는 미세한 자장을 측정하는 심자계 등 의료기기를 비롯 자원탐사 등 지질학분야, 기초과학 측정분야, 전자계측기 등 전자공학분야 등에 쓴 값으로 폭넓게 실용화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콘트롤 박스 내장용 범용

인버터 개발 출시

금성계전 (주)

금성계전(대표 : 성기설)은 최근 전용기계 또는 컨베이어 라인 등의 콘트롤 박스에 내장되는 범용 인버터 Starvert-CB 시리즈 5종(0.4, 1, 5, 0.75, 2, 2, 3.7KW)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금성계전은 지난 각종 첨단기능의 인버터를 자체 개발한 바 있는

업·계·소·식

데 이번에 개발된 콘트롤 박스용 Starvert-CB시리즈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자체 개발하게 되었다.

금성계전이 이번에 자체 개발한 범용 인버터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폭(가로)이 기존 범용 인버터의 240mm보다 38%가 작아진 150mm로서 콘트롤 박스의 내부설치에 용이하도록 설계된게 특징이다. 또한, 우개형으로 개발되어 좁은 콘트롤 박스내에서도 열발산 효과가 크며, 기존의 범용 인버터 사용자도 콘트롤 박스내의 배선 변경 없이 교환이 가능하다.

금성계전은 이번 컴팩트한 사이즈의 콘트롤 박스용 범용 인버터의 개발로 단독(전용) 기계 제작 메이커들이 콘트롤 박스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최종 수용자에게 인버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며 기계의 고급화 및 에너지 절감에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금성산전(대표: 이희종)은 최근 탁상용 소형 커피 자동서비스기인 '미니 카페' (모델명: GSK-252H)를 개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미니 카페'는 크기는 소형(높이 636×폭 417×깊이 417mm)이면서도 대형과 동일한 성능의 제작된 자동 음료서비스기로 사무실, 음식점, 이·미용 업소, 사우나, 대리점 등 각종 업소에 설치하여 경비절감은 물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니카페'의 특징으로는 커피와 우리차를 기호에 따라 선택해 즐길 수 있으며, 선택버튼이 종래의 유사제품과 달리 원터치방식이며, 문을 열지 않고도 컵과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며 컵 저장방식이 내장형으로 되어있어 위생적이며 외관이 깔끔하게 디자인된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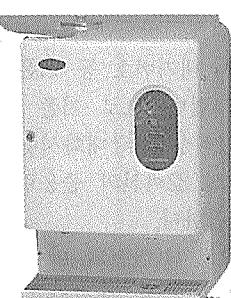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대형빌딩의 구내통신을 지원하게 될 대용량 집단전화교환장치 (제품명 TDX-1B CPS)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교환장치는 가입자 1천~2만회선의 대형빌딩내 통신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산 수전자교환기 TDX-1B를 응용해 설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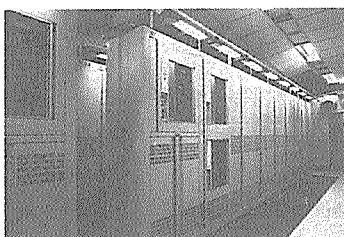
금성정보통신은 이 제품이 1만회선의 지원능력밖에 없는 TDX-A의 용량부족을 보완했으며 특히 대형빌딩에 구내 교환용으로 공급돼온 대용량부족을 보완했으며 특히 대형빌딩에 내 교환용으로 공급돼온 대용량 사설교환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성은 이 제품과 함께 RSS(원격교환장치)도 같이 개발해 다른 빌딩 중·소규모 가입자(1천회선)들을 모국교환기(TDX-B CPS)에 수용할수 있도록해 시스템이 매우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소형 커피 자동서비스기 개발 · 시판 금성산전 (주)



집단전화 교환장치 금성정보통신 (주)



업·계·소·식

ISDN용 키폰시스템 수출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 백중영)은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디지털 키폰 시스템을 개발, 이탈리아에 수출키로 했다.

동사는 국내 최대용량인 162회선을 ISDN에 접속하는 완전 디지털 키폰시스템을 개발, 오는 10월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한편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유럽정보통신 및 사무기기 전시회에 출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키폰시스템의 대용량화 및 ISDN구축에 따른 완전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일반 유무선전화기와 기존 아날로그 키폰전화기와 기존 아날로그 키폰전화기 무선 키폰전화기 디지털키폰전화기 등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형 무선키폰전화기 국내 최초개발 금성통신 (주)



핸드셋을 세우는 무선전화기 신제품 개발, 출시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 백중영)은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폰시스템의 기능과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무선전화기 기능을 복합시키고 LCD판에 한글표시기능을 부가한 한국형 무선키폰전화기 (CKT-24)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출시한다.

금번 개발한 무선키폰전화기는 기존 고감도무선전화기와 같이 15CH MCA방식 및 잡음감쇄회로를 채용하여 잡음 및 혼신을 극소화시켰으며, 고정장치는 기존 키폰전화기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고 LCD판에 날짜 및 시계기능, 키폰내선번호, 착발신된 전화번호, 단축다이얼번호, 현 동작기능 설명, 메세지 대기번호 등 키폰의 모든 기능이 한글로 표시되며, 간단한 프로그램변경으로 기존 키폰시스템에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금성통신은 최대 국선 12회선, 내선 32회선의 중용량급 키폰시스템(GK-1232 HD)을 개발하여 시판한다.

이제품은 하브리드형 간이교환시스템으로 최첨단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통신비 절감시스템을 실장하고, 일반전화기를 최대 28대까지 연결하여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내용이 다양하고 한글 / 영문 겸용표시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토록 한 것이다.

금성통신(대표 : 백중영)은 고정장치는 간소화하고 핸드셋에 필요한 전화기의 기능만 실장하여 세우는 타입의 보급형 15채널 MCA 무선전화기(GT-360)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했다.

본 제품은 보급형임에도 원터취 재다이얼기능, 자동통화기능, 자동대기기능, D.D.D 제어기능, 10개의 단축다이얼기능, 재발신기능, 톤 전환기능(전자식신호기능), 포즈기능, 플래시기능 등을 채용하여 편리하고 경제적인 무선전화기로서 가정과 사무실, 점포, 가게 등에 적합하다.

또한 15채널 MCA방식 및 슈퍼클리어 회로(Comander IC) 채택으로 혼신 및 잡음을 극소화 했으며, 1백만개의 비밀번호 내장으로

업·계·소·식

이웃 전화기로부터의 도용을 방지하여 깨끗하고 선명한 무선통화를 즐길 수 있다.

CCTV 수출에 나서 금성하니웰(주)



금성하니웰(대표 : 신용규)은 최근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CCTV 시스템 및 단품을 '93년부터 亞·太지역에 수출키로 미 하니웰사의 아·태지역 판매법인인 AP사(Asia Pacific Inc)와 공식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금성하니웰은 자체 고유모델인 중·소 규모형 감시시스템(모델명 Goldeye) 및 CCD카메라 등을 미 하니웰 AP사의 판매망을 통해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폴, 호주 등 아·태지역에 수출케 되었는데 내년도 4억여원 수출을 시작으로 '94년 6억원, '95년에는 10억원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금성하니웰은 지난 '88년부터 2/3" 흑백 CCD카메라와 마이크로프로세서 감시 제어시스템인 Autocop 1000의 생산, 판매를 시작으로 근래에는 칼라 CCD 카메라와 저조도 특성이 뛰어난 1/3" 흑백 CCD 카메라를 개발하였고 주차장, 오피스빌딩 등 중·소 규모감시 시스템인 Autocop 122/244 (카메라 12/24대용)를 생산 시판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보편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방법에 대한 요구에 부응코자 소형 DIY (Do It Yourself) 형은 Goldeye(카메라 4대용) 시스템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등 CCTV 시장에 있어서 국내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강화시켜 왔다.

중국에 합작공장 설립 진출 대아리드선(주)

리드와이어 전문업체인 대아리드선(대표성 : 횡성박)이 중국에 진출한다.

작년부터 중국 료녕성 정부와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해온 이 회사는 최근 한중수교로 합작의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자본금 7대 3의 비율로 현지에 리드선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자본금 49만달러 규모의 이 합작법인은 료녕성 심양시에 건평 2천평규모의 공장을 마련,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 420t의 리드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아리드선은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현지판매와 함께 인근 동남아국가로의 수출도 추진키로 했다.

PC 탁상 출판시스템 대우통신(주)

대우통신(대표 : 박성규)은 PC가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의 PC 활용도 증대를 목적으로 S/W를 개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대우 PC 탁상 출판시스템」은 문서, 도형 및 Image의 입력, 편집, 구성 등을 한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Laser Printer로 하는 출력작업까지 하나의 PC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워드프로세서가 하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계·소·식

수 있으며, 일반 Line 및 Screen Editor에서 작성된 ASCII File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따라서 개인의 출판물, 주보, 사보 등의 비전문적인 제작물작성과 논문, 일반문서,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작하는데 용이하다.

「대우 PC 탁상 출판시스템」은 풀다운 메뉴와 대화형 메뉴박스 채용으로 기존의 복잡한 키동작이 필요 없으며 출력 상태가 화면에 나타나 잘못된 출력을 여러번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한, 11가지 문자방식과 다단 편집기능이 가능하며 한글모아쓰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영문 DOS 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보기 기능이 있어 출력화면을 대략 볼 수 있으며 임시 저장 기억 장소가 3개 제공되어 내용의 손실을 방지해 준다.

이외에도 3가지 측정단위 제공(Cm, DOS, Inch), 사용자 정의 문자스타일 10가지 제공, 12가지 특수문자, 4,888자 한자 입력 등의 기능이 있으며 신명조, 태고딕, 세명조, 세고딕 및 서체 추가가 가능하다. 또한, 기본 글자체 외에도 직접 글자체를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문자 스타일이 10가지가 제공된다.

첨단계측장비 개발 대호전자 (주)

대호전자(대표 김고)가 첨단계측장비를 잇따라 국산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3억원의 개발비를 들어 기존의 테스터와 오실로 스코프의 기능과 과형비교분석기능도 함께 갖춘 고장진단 종합장치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리페어맨이란 브랜드로 소개된 이 기기들은 초집적화 전자화되는 첨단전기 전자제품의 미세한 결함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장비는 양호한 회로기판이 있을 경우 회로도 및 설명서 없이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과형을 단순비교함으로써 초보자도 불량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이에따라 테스터나 오실로코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장비를 도입할 경우 생산공정을 비롯 연구개발 유지보수 등 각분야에서 작업효율을 높일수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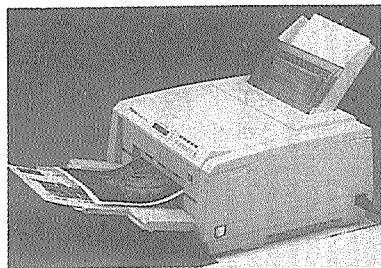
이같은 계측장비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미국 플라사 혼트론사 등 몇몇 기업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범용 LP개발 삼보컴퓨터 (주)

삼보컴퓨터는 신속한 문서작성과 다양한 편집기능을 갖춘 국산 범용 레이저빌프린터를 개발했다.

삼보컴퓨터 (대표 : 김종길)는 국산엔진을 장착한 범용 레이저 프린트를 개발, 이달중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 OA(사무자동화) 시장을 겨냥해 만든 이 제품(TGLBP-1000)은 1분에 10장의 인쇄속도로 신속한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풍부한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형 PCS시스템 개발 삼성전자 (주)

다양한 표현력 제공을 위해 영문 19서체, 한글 명조체 고딕체, 한자 면조체 등과 한글의 옛문자(고어)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표준의 한자 4천 8백 88자를 기본으로 내장, 별도의 한자 구입 비용이 필요없다.

이와함께 △고품위 레이저 빔 스캐닝 방식 △풀페이지 메모리 그 래픽 △B4 크기의 문서 축소편집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대표 : 정용문)은 (20)일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도 우리 설정에 적합하게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된 국내 첫 국산 POS (Point Of Sales : 판매시점관리) 시스템(모델명 : SPS-6000)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POS시스템의 순수 자체개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6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POS 시스템이란 금전등록기능과 컴퓨터의 단말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판매시점에서 정보를 일괄 관리하며, 입고관리, 점원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등을 동시에 수행할수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기존의 POS시스템이 외국산의 고가격인 관계로 인해 대형백화점이나 대규모 유통점에서만 일부 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삼성의 POS시스템 SPS-6000은 국내 유통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사용시 편리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개발된 것으로, 자체기술에 의해 설계, 제작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유통시장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에서도 효율적인 판매 및 영업관리를 할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LED 방식 페이지프린터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는 LED(Light Emitting Diode : 발광다이오드) 방식을 채용한 페이지 (PAGE)프린터의 순수 자체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페이지프린터란 레이저프린터 · LED프린터 · LCS(Liquid Crystal Shutter : 파정개폐)프린터 등과 같이 출력할 내용을 페이지 단위로 인쇄하는 프린터를 말하는데, 출력 단위가 라인별로 되어 있는 잉크제트프린터 · 베를제트프린터 등의 라인프린터보다 인쇄속도가 빠르고 화질이 선명하여, 특히 출력 단위가 글자별인 도트프린터와 비교하면 선명한 인쇄상태, 조용한 인쇄, 빠른 인쇄 등이 매우 돋보이는 장점이 있다.

이번 LED 프린터(모델명 : SL-1051A)는 분당 5장의 인쇄가 가능하고, 해상도는 기존 OA용 페이지프린터와 같은 수준인 300DPI(Dot Per Inch)로 성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금까지의 페이지프린터는 레이저빔과 전자사진프로세서를

업·계·소·식

이용한 레이저 프린터가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SL-1051A에는 레이저빔 발생장치 대신에 LED 헤드를 광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부피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LED 헤드 국산화가 완료됨으로써 향후 판매시에는 개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독 LCD 사업부문 인수 오리온전기 (주)

브라운관 전문 메이커인 대우계열 오리온전기(대표 : 석진철)가 한독의 LCD(액정 디스플레이)사업부문에 대한 최종적인 인수계약을 체결, 본격적으로 LCD사업에 참여한다.

지난 5월 22일 체결된 잠정계약에 따라 양사는 그간 세부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인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무리지었으며, 31일 그에 따른 수정·보충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오리온전기는 한독의 LCD 관련 제조설비 및 자재일체는 물론 기술 및 관리인원을 최대한 흡수키로 하는 등 LCD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오리온전기는 올 하반기중 구미공단에 신공장을 건설, TN 및 STN-LCD분야의 양산체제와 함께 TFT-LCD의 생산설비를 갖추어 신규시장개척에 본격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따른 투자 규모는 TN 및 STN-LCD분야 5백억원, TFT-LCD분야 3백억원, TFT-LCD분야 3천5백억원 등 오는 '95년까지 모두 4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오리온전기는 LCD사업의 최종목표로 설정한 TFT-LCD의 조기개발 및 양산체계 확보의 교두보 마련을 완결지은 셈이다. 따라서 오리온전기는 현재의 주력사업인 브라운관 분야와 더불어 LCD, PDP, EL 등에도 진출하게 되어 첨단 종합 용상디스플레이 메이커로서의 변신을 도모하게 된다.

카드전표 일관출력 새신용조회기 개발 한국정보통신 (주)



한국정보통신(대표 : 정지택)은 최근 카드조회와 동시에 자동으로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조회기(PT-9200)를 개발했다.

그동안 카드기맹점들은 전표발행을 위해 카드조회 전표작성, 프린터를 통한 수동인쇄 및 서명날인의 4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의 개발로 카드조회와 함께 카드종류 회원번호 결제조건 금액 등을 한번에 출력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의 자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이 제품은 사용자 편의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카드매출대금의 자동이체, 일일결산과 계산기 기능도 있다.

또 카드승인번호를 즉석에서 부여하도록 한 것도 이 조회기의 특징가운데 하나다.

386 노트북 PC 양산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대표 : 정몽현)는 지난 7월 국내선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PCMCIA카드를 장착한 386SL 노트북의 양산에 돌입. 내달부터 본격 수출 및 시판에 나선다.

현대가 연내에 총 3천대 정도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는 신제품은 현재 노트북 PC의 표준화장 슬롯으로 정착되고 있는 PCMCIA카드를 정착, 모뎀 팩시밀리 LAN(근거리통신망)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한글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 기존 노트북의 성능저하를 방지했고 25MHz의 절전형 386SL CPU를 탑재했으며 캐시메모리 를 표준 장착했다.

현대는 신제품의 가격을 2백만원대로 책정. 업무용 및 개인용 사용자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모스크바 소비자 박람회 안내

KOTRA에서는 국내 소비재상품의 대 CIS 수출증대를 위하여 '93 모스크바소비자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박람회는 동구권 국가는 물론 서방 유수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CIS 최대의 소비자 박람회로서 CIS내의 소비재 공급부족을 감안할 때 대 CIS 소비재 수출증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 명 청 : Consumexpo '93 (모스크바 소비자 박람회)
- ◇ 기 간 : '93. 1. 18 - 24 (7일간)
- ◇ 장 소 : 모스크바 Exhibition Complex
- ◇ 규 모 : 38,000 S/M
- ◇ 성 격 : CIS 최대의 소비재 용품 박람회

- ◇ 참가규모 : 300 S/M 이상
- ◇ 파견 예정업체수 : 10개사 내외
- ◇ 출품유망품목 : 전기·전자·통신·섬유·의류·주방용품·화장품·의료용품·문구류·세라믹제품·전자저울 등 소비재전반

- ◇ 신청기한 : '92. 9. 9. (수)
- ◇ 신청구비서류 : ① 참가신청서(당공사 소정 양식) 1부 * 첨부서류 포함
② 출품품목 카타로그 2부
③ 참가예치금 납부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사본 1부
- ◇ 문 의 처 : KOTRA 전시부 해외전시 2 과
- Tel : 551-4424
- Fax : 557-5784